

● 돼지 우리에 살 것인가, 부처 나라에 살 것인가

- 세상에서 가장 탁한 일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고, 그 다음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며, 그 다음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것이다.
- 가장 좋은 취미는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동경하는 것이며,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자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.

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.
돼지우리에서 계속 더럽게 살 것인가,
아니면 깨끗한 세계로 돌아갈 것인가.